



검찰, 이재명에 소환 통보…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 막바지 조만간 최종 판단 나올 듯…민주당, 소환 응할지 논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대표 본인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이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과 강원을 도는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민심 행보에 나선 상황이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 현

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 할 것을 우려해 현안 기업을 접촉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등의 뇌물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일화 인수 당시 언론 사와 가진 인터뷰('난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인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를 함께 제시했다.

지난 9월 1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직접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성남FC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조만간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 송진영 기자



현재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 금지는 과도한 제한"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현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며 "마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노승만 기자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시상식-대회사



메디슨그룹 송유영 회장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시상식에서 대회사를 말하고 있다.

"세계 속에 빛나는 문화강국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무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펜데믹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진 책임있는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신 조직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의 수상자 여러분의 영광된 자리이고, 한류문화가 세계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곳에서 묵묵히 노력과 혁신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앞으로 문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세계 속에 빛나는 문화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상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한류문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심사과정에는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분들이 참여하여 각 부문에서 가장 엄선한 심사를 거친 후 수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조직위원회는 한류문화공현대상을 수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과 문화 위상을 높이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대화 중인 송유영 회장

각 분야의 빛나는 업적을 남긴 인물과 단체를 알리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상식을 통하여 이러한 분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선정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가 우리 모두에게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상식이 빛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조직위원회 대회장

송 유 영 (메디슨그룹 회장)

SEOUL KOREA COMPANY

서울코리아

| 정통 언론 종합 시사 전문지 | 2022년 송년호 | 통권 Vol. 437호 |



2022년 세계한류문화공현대상 시상식

- ① 대회사·환영사·축사·인사말
- ② 각 부문별 대상 선정…43人 시상
- ③ 공로상 선정…38人 수상

대회사 송유영 / 메디슨그룹 회장

"세계 속에 빛나는 문화강국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40분 지휘 공백”…구속영장 방침

“현장도착 이후 지휘권 선언까지 별다른 조치 안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최 서장 구속수사 병첩을 공식화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 근무기록과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10월29일 오후 10시28분부터 지휘권을 선언한 오후 11시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 이미 인파 끼임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 서장은 40분 동안 무전을 듣고 이모 현장지휘팀장과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현장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특수본은 파악했다.

참사 당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오후 10시43분에,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에 발령했다. 1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발령하는 대응 2단계는 지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인파 끼임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을 오후 11시22분으로 보고 있다. 최 서장이 대응 단계 발령 등 지휘를 제대로 했다면 이 시각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사고 후 조치는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당시 현장에서 끌어있는 인파를 한 명씩 빼내는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심폐소생술(CPR)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응급환자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에도 소방당국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참사 발생 직후인 오후 10시18분께 현장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태원역 쪽에서 인파에 갇힌 시민들을 한 명씩 빼내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인명구조가 여의치 않자 오후 10시27분께 세계음식거리 쪽으로 돌아들어가 대열 뒤편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구호조치가 경찰보다 늦은 데는 최 서장 등 지휘부 책임이 크다고 특수본은 보고 있다.

참사 당시 현장과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1순위 응급환자 아닌 사망자가 대거 이송되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짧지 않은 시간 사실상 방치됐다. 특수본은 응급환자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소방당국은 물론 용산구보건소의 책임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 김웅찬 기자



김건희 여사, 쪽방촌 방문

“이웃에 온기 나눠주는 분들에 감사”

김건희 여사는 22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에게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구세군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쿠플리언터네셔널에서 후원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2022 찾아가는 성탄절, 희망박스 나눔’ 행사를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18년과 2021년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됐으며,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김 여사가 최초로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 여사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 댁을 방문해 ▲햇반, 컵밥, 김 등 각종 식료품이 든▲ ‘희망박스’를 직접 전달했다. ▲해당 쪽방촌에는 약 400가구가 한 평 남짓한 쪽방에서 거주 중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따뜻하고 멀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부와 지역사회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르신은 김 여사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랑의 열매 배지를 착용한 김 여사는 가정방문에 앞서 인사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눠주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같이 활동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외계층 봉사를 실천해온 종교계와 관련 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 이성진 기자

與 “신현영,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최악 갑질’…윤리위 회부”

申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동시 복지장관 관용차 이용…복지차관 차량 탑승 못해

국민의힘은 22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차량 도착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상대로 총공세를 펴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신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우리 당은 (신 의원을)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원내대표는 신 의원이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그에 따라 지체된 현장 도착 시간, 도착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이유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며 “이를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어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의 갑질로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사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갑아먹을 상태”라며 “숨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길 바란다”고 촉구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사 현장에 갈 때는 명지병원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을 자행했다”며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당연지사이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은 참사 현장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 ‘확신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패륜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할 때 조 장관의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애초 이 차에 탑승하려던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차량에 탑승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배지 플렉스’를 했던 것”이라고 신 의원을 비판했다.

신 의원이 15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을 두고는 “현장 방문의 목적이 구조가 아닌 ‘화보’였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 곽현민 기자

대설에 항공기 무더기 결항…안전사고 2건 늘어 28건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강한 눈보라로 오전 11시 기준 항공기 110편이 결항하고 전국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총 2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결항한 항공편은 출발 기준 63편이다. 다만 눈보라가 빠르게 거세지면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 결항이 출발 118편, 도착 111편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이밖에도 김포 출발 24편, 광주 출발 10편이 결항했다.

여객선은 47개 항로 57척이 통제됐으며, 국립공원은 10개 공원 256개 텁방로가 통

제 중이다. 도로는 경북 16곳, 경남 3곳, 전남 1곳 등 지방도 20곳이 통제됐다.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직전 집계인 오전 6시 기준보다 2건 늘어 총 28건이다. 이 중 일부에서는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설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만큼 중대본 집계상 인명피해 상황에서는 빠졌다.

시설 피해는 계량기 등과 283건이 있었다. 서울 183건, 인천 47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수도권 등과도 경기에서 1건 집계됐다.

/ 박민영 기자

SAMSUNG

T7 Shield

압도적 내구성의 포터블 SSD

연속 읽기 성능 1,050MB/s | 연속 쓰기 성능 1,000MB/s | IP65 등급 방수·방진 | 최대 3m 낙하 충격 보호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현 중1 적용’ 대입제도 내후년 확정

융합선택과목 신설되고 학교 외부수강도 가능…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가 22일 확정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수업 시수 중심인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달리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이 학점 기반으로 바꾼 것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



고교학점제, 스스로 선택한 수업 경청하는 학생들

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교육계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교육부는 전면 도입 시점을 2025년 이후로 미루 가능성이 열어둔 상태다.

최근 취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평가 체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교원들의 평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고교학점제 도입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각

과목은 학기당 기본 4학점(체육, 예술, 교

양은 3학점)으로 배정돼 있다.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는 8학점, 과학은 10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사(6학점), 체육, 예술(이상 10학점),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상 16학점)의 필수이수학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을 듣는다.

그러나 2학년부터는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만 구성돼 있다. / 강성진 기자



향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

994조2천억원에 이어 3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1천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자주(13.8%)보다 취약자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32.7%)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3분기 말 현재 2020년 1분기 말에는 700조원에 그쳤으나, 2021년 1분기 말 831조8천억원, 2022년 1분기 말 960조7천억원, 2분기

/ 차종영 기자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판부에 ‘유해성 입증’ 증거 제출

국립환경과학원, ‘CMIT·MIT 폐에 전달’ 연구 논문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흡입기로 들이마시면 폐로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관련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흥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공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연구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것으로,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코)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

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과거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이드(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이드(PGH)과 다르다.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보이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검찰이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새로운 실험 결과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이종영 기자

기대 못미치는 동절기 접종률…‘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변수될까

기한 1주 남았는데 목표치 절반 수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동절기 추가접종의 접종률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차례 연장해 운영 중인 집중 접종기간이 1주일여 남았지만 접종률은 목표치의 절반에 조금 넘는 수준이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8.4%,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종사자에서 47.9%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1일부터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지난 18일까지였지만 이달 말까지로



로감과 접종을 강하게 유인할 방역 정책의 부재,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 중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의 대상 백신인 2가 백신(개량백신)이 이전 백신들에 비해 이상반응이 눈에 띄게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기존 단계 백신의 이상 사례 발생 비율은 접종 1천건당 3.7건이었지만, 2가 백신의 접종 이상 이상 사례는 0.35건 수준으로 10분의 1 하락로 낮았다.

추진단은 “2가 백신의 접종 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동절기 추가 접종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임정민 기자

전기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과 더불어
전기안심건물 인증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그리고 전기안전증합정보시스템 개설까지—
KESCO의 더 스마트한 전기안전체계 구축이
우리집 전기안전을 더욱 안심하게 합니다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네트워크 리더 —
KESCO는 이런 일도 합니다

- 빌전소부터 가정집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및 기술지원
- IoT기반전기안전기술 개발 및 솔루션 보급
- 전기안전 국제기술협력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신재생 에너지 전기설비 검사 및 기술지원
- 전기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여야 기싸움 협상교착 장기화…김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통첩

대통령실 향한 압박용 해석도…野 “더 못 기다려” 동조, 與는 고심

여야는 올해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거듭했다. 자칫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다.

김 의장이 현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놓고 사실상 ‘정부 동의’가 마지막

열쇠가 된 상황에서 김 의장이 본회의 시점을 못 박아 대통령실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가 범인세 최고세율을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 끌어 협상을 진전

시키지 못하는 것은 행정 예산을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결부된 문제로 인식하는 대통령실의 부정적 반응 때문이라는 시각이 정치권에서는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의 협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정도의 의견 접구를 이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협상 교착의 원인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 입장 발표가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도 어제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비공개 회동의 분위기로는 큰 물꼬를 틔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후의 여전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심호진 기자



한덕수 총리, 국가우주위원회 주재

**한총리 ‘무단횡단’ 논란에
총리실 “용산서 경찰관 지시 따라”**

국무총리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단횡단 논란’과 관련,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총리는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

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설명했다.

한총리는 지난 19일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한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 최문성 기자

이태원 국조특위, 한달만에 현장조사…경찰·서울시 대응 ‘질책’

우상호 “책임 명확히 따지겠다”…오세훈 “책임 다하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



발언하는 우상호 위원장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닷을 옮긴 지 약 한 달만이었다. 10·29 참사 발생일 기준으로는 53일만에 열린 현장조사였다.

애초 이날 현장 조사는 야(野) 3당(더

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 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우 위원장은 골목길 조입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좁은 곳에서 158명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일부는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연신 외쳤다. “왜 이제야 왔느냐?”는 고함도 들렸다.

분향소 인근에는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국정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 유족들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문을 마친 특위는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호텔 옆 골목길로 향했다.

우 위원장은 골목길 조입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좁은 곳에서 158명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 김수홍 기자

소방관계자의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특위 위원들은 곧장 이태원파출소로 자리를 옮겨 참사를 전후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여야 공히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차 확인한 뒤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당시 정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만이라도 (골목길) 위 아래를 지키며 관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인파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 통제를 한다고 경찰이 인도로 사람들을 밀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여야 위원들이 질의하는 동안 유족들은 경찰을 향해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한 유족은 오열하며 실신하기도 했다.

/ 김수홍 기자

국방부, “軍 ‘보안사 부활법’ 추진” 주장에 “사실과 달라…유감”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에
대한 군인권센터 비판에 반박**

또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 정부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제4조)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할 때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며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 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한 특정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의 제4조 등은 국민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며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자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주장했다.

/ 이보현 기자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한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연결’이라는 크고 깊은 변화로
모두의 금융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푸틴, 전쟁 끝낼 의사없어”…젤렌스키 “영토, 타협불가”

美, 우크라 지속 지원 방침 재확인…패트리엇 포함 2조여원 추가 지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주구하는 데에 열려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낼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이어지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

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185억 달러(약 2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지금껏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 가운데 단일 지원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원 패키지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포함될 것”이라며 “패트리엇 포대를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1년 중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에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겨울을 무기로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을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걸음마다 함께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이 이어지는 한 당신들과 함께할 것”

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도움과 지원에 매우 감사하다”며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은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단지 평화를 위해 내 나라의 영토와 주권, 자유에 대해 타협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특정한 방안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히며 “우리가 평화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국에 특정한 조치를 요청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강호섭 기자

안보리, 첫 미얀마 결의안 채택

“민주 제도·절차 유지하고 건설적 대화 추구하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군부 독재로 신음하는 미얀마에 관한 첫 결의안을 21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찬성 12개국, 기권 3개국으로 미얀마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948년 옛 베마의 유엔 가입을 권고한

안보리 결의 이후 74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 문제를 다룬 결의안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를 제외한 12개 이사국이 찬성한 결의안에서 안보리는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폭력 종식과 아동수遭국가 고문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도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를 유지하고 국민의 뜻과 이해에 따라 건설적 대화와 화해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시민운동가들에 대한 처형을

강력 규탄하면서 “폭력 수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정치적 해법에 도달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진실하며 포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동남아국연합)에서 합의된 평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안보리 표결에 앞서 스템파드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미얀마 인권 상황 악화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을 호소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 이사국들과 온도차를 보였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중국은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고,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미얀마 문제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박정훈 기자

‘탄핵’ 폐루 전 대통령 가족, 멕시코서 망명 생활 시작

페드로 카스티요 전 폐루 대통령의 부인과 두 자녀가 21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망명생활을 시작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8시께 카스티요의 가족들이 멕시코시티에 안전하게 들어왔다”며 망명 허용은 멕시코 외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멕시코는 정치적 망명 요청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어서 국제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정치적 망명자로 통한다. 볼리비아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쿠바 독립운동가 호세 마르티,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 등이 멕시코에 머문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카스티요 전 폐루 대통령도 의회로부터 탄핵당한 직후 망명



폐루 새 총리 임명식

을 위해 멕시코대사관으로 피신하던 중 반란 및 음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튿날 파블로 몬로이 주폐루 멕시코 대사가 구금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을 방문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

내는 ‘망명 신청’ 서한을 직접 받았다. 폐루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몬로이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한 뒤 추방 명령을 내렸다. 몬로이 대사를 ‘애국 외교관’이라고 칭

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몬로이 대사) 곧 멕시코시티로 돌아올 것”이라며 “폐루에 사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대사관을 철수하거나 폐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폐루 대사 추방 맞대응’ 주장에 대해선 “우리는 누구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디나 블루아르테 폐루 대통령을 인정한 미국에도 각을 세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카스티요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에서 연일 이어지는 시위와 각료 사퇴로 정권의 불안정성을 노출한 블루아르테 대통령은 지난 7일 취임 후 2번째 총리로 루이스 알베르토 오타롤라 전 국방장관을 임명했다. 지난해 7월 카스티요 집권 이후로는 폐루의 7번째 총리다.

/ 이민성 기자

WTO “홍콩제를 ‘중국제’로 표기하라는 미국 조치, GATT 위반”

홍콩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중국제’(Made in China)로 표기토록 한 2020년 미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 협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 기구(DSB)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린 이런 조치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에 어긋난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조치는 홍콩산 제품들에 다른 회원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협정 위반이라고 WTO는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Hong Kong, China’라는 명칭으로 WTO에 중국과 별도로 가입돼 있다. WTO는 이에 따라 미국이 GATT 1994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원산지 표기 조치를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2019년과 2020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과 구별되는 홍콩의 특수 지위를 인정해 홍콩에 부여해 왔던 여러 가지 무역 특별대우를 폐지했다. 홍콩은 1997년 7월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후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됐다.

/ 최병문 기자



저탄소 사회의 미래, 금융으로 선도하다

KDB 탄소스프레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탄소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육성 지원

• 기후대응기금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자보전 사업’ 지원대상(한국부)

총 운용규모 5조 원 이내 금리우대

(온실가스 감축 기여 평가기준 등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연 2.6%, 한도 소진 시까지)

KDB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

초기단계 탄소중립 핵심기반 분야인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및 그린혁신기술·기업 지원

• 기후대응기금과 산업은행이 함께 재원 조성

총 운용규모 3,000억 원 이내 금리우대

(우대금리 연 0.75%, 한도 소진 시까지)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D기준금리+유동수익률, 신금채 유동수익률 등) + 기산금리(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리스크프리미엄 등) - 우대금리로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산업은행 종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04-005호(2022.04.25, 2022.04.25-2023.12.31)
* 산업은행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하여 종합미 실명한 의무가 있으며, 거래 전 고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에 관한 초기 상세사항은 영업점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유동수익률, 우대금리를 최종 결정됩니다. *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도성 상품의 경우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 원까지는 수입인지 버墉이 없으며, 5천만 원 초과시 대출금액을 수입인지 버墉이 차등 부과되며, (수입인지 버墉은 각 50%씩 고작과 은행이 부담) 또한 기타 부과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서한 내용은 영업점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상환은 일시상환방식 또는 분할상환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하시는 이자 납입일을 통하여 일정주기(예 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합니다.
* 대출금의 조기상환시 기한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시 만제입니다. * 기한상환수수료 = 기한상환금 × 기한상환수수료 × 기한상환일로부터 대출기한일까지 전에 모든 원리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연체수수료(대출기간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율이 차등될 경우 연체이율(22.04.25) 기본 대출금 × +3% 최고 연 15%)이 적용되며 대출기간과 대출기한일까지 전에 모든 원리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재무 및 신용상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관하여 종종 미 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www.kdb.co.kr),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 내용은 [22.04.25]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는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최태원,尹에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펀딩 활성화 요청

비상경제민생회의 토론…尹 “정부가 시장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1일 이른바 ‘투자절벽’ 상황과 관련해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 순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한 한 총리 오른편에 앉았다.

당초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던 토론은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가 전체 회의 영상을 방송하면서 공개됐다.

최 회장은 “시장이 현재 상당히 막혀 있다. 이것을 풀려면 펀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 있는 목적성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전략산업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특화된 인력에 필요한 지원책이 뭘까 조금 더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교육과 훈련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청년들도 ‘이 직업이 내가 평생 택할 길’이라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며

“직업 시큐어(보장)를 함께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중산층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확실히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화된 형태의 시장 조성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을 예로 들기도 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이상 비용화시키지 말고 시장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탄

소중립 관련 기술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와야 한다는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게 미래 멀거리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위기, 기후위기, 경제안보, 지역균형발전을 아울러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장화할까 생각해보면 투자 활성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세계 시장이 변했다. 과거 ‘원 마켓’ 형태가 아니다”라며 “시장은 꽤 개져 있는 상태고 옛날같이 효율성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안보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 회장의 조언에 정부 규제의 본래 의미는 ‘거버넌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이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

고도 설명했다. / 이문호 기자

쌍용차, 35년만에 이름 바뀐다

‘KG모빌리티’로 새출발



쌍용차 곽재선 회장

더라도 쌍용차의 역사는 바뀌지 않고 같은 조건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내년 3월 예정인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사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주총에서 정관변경이 승인되면 쌍용차는 1988년부터 이어온 사명을 35년 만에 바꾸게 된다.

1954년 하동환자동차제작소로 설립된 쌍용차는 신진자동차(1967~1975), 동아자동차(1975~1986)라는 이름을 사용하다 1986년 쌍용그룹에 인수되며 1988년부터 쌍용차라는 사명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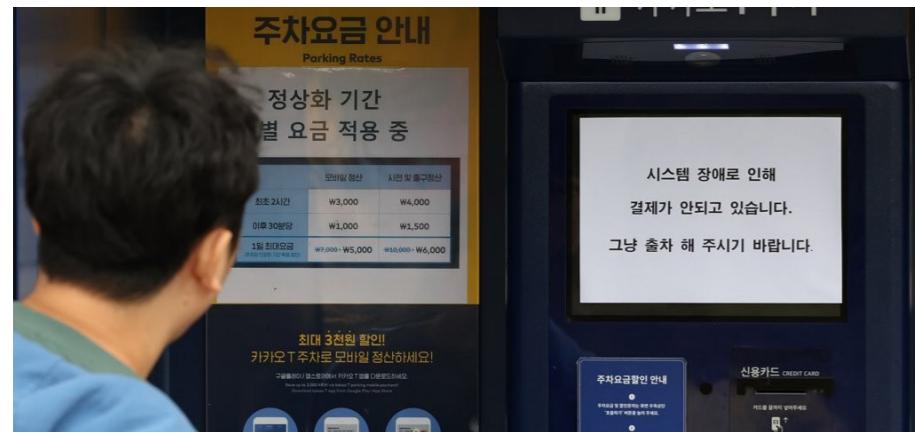
KG그룹을 이끄는 곽재선 쌍용차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2022 자동차인의 밤’ 행사를에서 “쌍용차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새로운 이름으로 가기로 했다”며 “주주총회를 통해 KG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날 한국자동차기자협회로부터 산업부문 공로상을 받았다.

그는 “쌍용차라는 이름에는 팬덤도 있지만 아픈 이미지도 있다”며 “앞으로 쌍용차의 새로운 차는 KG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나올 것이고, 이름을 바꾸

긴 것으로 해석된다. / 곽준영 기자

“먹통은 안돼”…플랫폼 업계, 연말연시 트래픽 폭증 대비 만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장애 방지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난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

터 회대로 인한 ‘먹통 사태’로 흥역을 치른 카카오는 비상 근무 체제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태세를 다지고 있다. 네이버와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등도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점을 거듭 중이다. 카카오는 22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연말연시 트래픽 폭주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2017년과 2020년 1월 1일 새벽 새해 인사 메시지 양이 급증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메시지 수·발신이 원활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던 만큼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카톡 운영진은 연말연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상 대기 근무에 들어간다. 카카오는 구체적인 비상 근무 인원은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는 또 2018년부터 ‘민방위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불시에 시행해 온 재난 대비 훈련으로 연말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먹통 사태 이후인 지난달 카카오톡 메시지 장애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만약 이번 해님이 기간에도 장애가 발생한다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빠르게 감지해 대응하겠다고 카카오는 밝혔다. 담당 서비스 부서의 컨트롤 타워에서 장애 등급을 판단한 뒤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겠다는 것이다.

장애 대응을 마친 뒤에는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원인과 조치 방법, 회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이력 등을 담은 장애일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 조직은 물론 다른 조직에서도 참고해 비슷한 장애를 방지하거나 유사 장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현성 기자

베트남서 선전하는 오리온…현지법인 연 매출 4천억원 돌파

오리온은 베트남 법인이 2005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연 매출 4천억원을 돌파했

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

지 단순 합산 누적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8% 성장한 4천67억원을 기록했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현지 진출 11년 만인 2016년 연 매출 2천억원을 돌파했고 2021년 3천억원을 넘어섰다.

오리온은 베트남 법인 매출 증가가 생감자스낵·파이류 등 전 제품 매출 성장과 쌀과자·대용식·젤류 등 신제품 시장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감자스낵 베트남 매출은 작년보다 39% 늘었고 초코파이 매출은 1천억원을

돌파했다. 카스타드 매출도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신규 거래처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대량 구매 수요가 큰 기업간거래(B2B) 판매를 추진하는 등 영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판매량 증가에 대비해 하노이 공장에 생산동을 신축하고 호찌민 공장을 증축할 계획이다. 제3공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호찌민 2개 공장의 가동률은 11월 기준 120%다.

오리온 관계자는 “생산기반 확충과 시장 확대를 통한 고성장세로 베트남 법인이 그룹의 성장을 주도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준영 기자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팀워크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팩」

(Home + Office, All-in-one Pack)

회계 / 세무관리	인사 / 급여관리	기업용문서	화상회의
내PC 원격접속	팩스	메일	웹오피스
근태관리	경비청구	전자결재	일정관리
할일관리	노트	웹스토리지	조직도
거래처관리	명함관리	문서협업솔루션	T-edge

* 홈페이지 접속 및 휴대폰 활용에 따라 일부 서비스 구성은 달라집니다.

폭설에 김포도시철도 혼잡 극심…호흡 곤란 승객 병원 이송



풍무역 이동통로에서 전동차 기다리는 승객들

경기 김포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21일 김포도시철도 일부 전동차가 폭설로 차량기지에 밭이 묶여 운행에 나서지 못해 승객 불편이 빚어졌다.

김포골드라인에 따르면 이날 출근 시

전동차 10량 투입 못해…승객 대기 줄 계단까지 이어져

격이 기존 3분 30초에서 4분가량으로 늘어났다.

10개 전체 역에는 승객이 계속 몰리고 있지만, 전동차 도착이 늦어지면서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풍무역은 승강장이 승객으로 가득 차 연결된 이동통로까지 대기 줄이 이어지는 등 불편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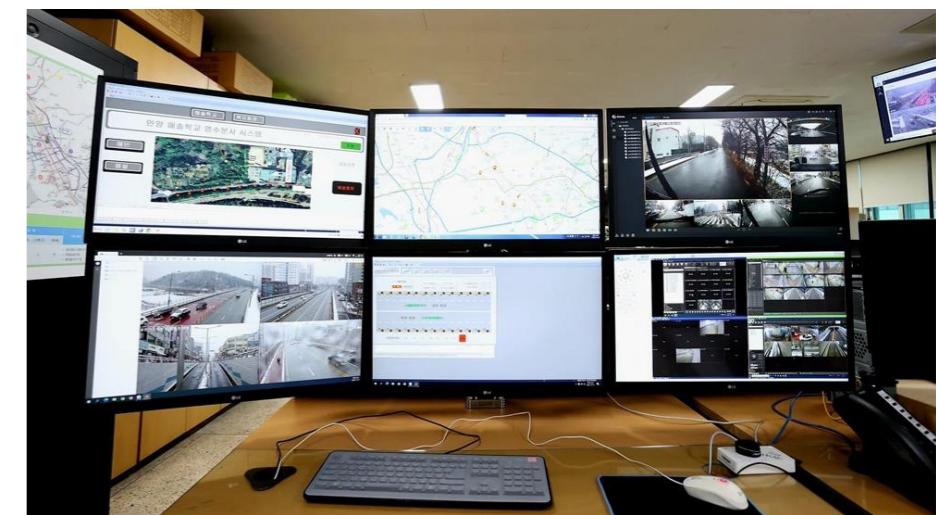
김포공항역에서는 오전 8시 10분께 승객이 몰린 전동차에 타고 있던 한 여성으로써 흥모씨는 “풍무역에 있는데 전동차가 늦게 도착하면서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며 “승강장과 연결된 계단까지 승객들이 서서 전

동차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포골드라인은 양촌역 차량기지 애외 선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각 역에 분산 투입해 승객 이동을 통제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는 “오전 8시 45분께 차량기지에 밭이 묶여 있던 전동차 1편성을 노선에 투입했다”며 “나머지 전동차들도 신속히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애외 선로 제설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도시철도는 한강신도시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총 23.67km 구간을 오가는 안전 무인운전 전동차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6만8천여 명에 이른다.

/ 강석용 기자



안양시, 제설트럭 활용 노면상태 실시간 영상 확인 시스템 구축

경기 안양시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트럭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안양시는 도로제설 우수 시·군에 선정돼 경기도로부터 받은 교부금 1천만원을 활용해 제설트럭 9대에 고해상도 CCTV,

GPS(위치정보시스템), 양방향 음성통화

장치를 설치했다.

영상관제시스템을 탑재한 제설트럭은

운전석에서 보이는 노면의 모습을 실시간

으로 구청 제설상황실로 전송한다.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통해 제설이 미

흡한 구간 등을 파악한 뒤 작업 지시를 내

리게 된다.

이날 영상관제시스템을 접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제설

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전

년보다 892t(41%) 많은 3천63t의 염화칼

슘·소금을 확보했다.

/ 변준영 기자

관악구, 치매 어르신 돌보는 ‘안심가맹점’ 상시 모집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동네 가게 ‘치매안심가맹점’을 상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안심가맹점은 거리를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신속히 신고하고 임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주는 구가 주관하는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환자 대응 요령 등을 배우고, 치매 인식개선 활동에도 나선다.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된 가게에는 중앙치매센터가 현판을 수여한다.

관악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

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2-879-4910)로 문의하면 된다.

관악구는 작년 9월 편의점 6곳을 시작으로 현재 약국,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치매안심가맹점 24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을 지속해서 확대해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구의 목표다.

구 관계자는 “치매안심가맹점을 확대해 환자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경 기자

서울시,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27일부터 통합

서울시는 이달 27일부터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합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상수도·도시 가스를 절약해 탄소 배출을 줄인 가정과 사업장에,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하나로 합친 ‘통합에코’ 홈페이지가 개설됨에 따라 기존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통합에코 회원으로 연계되고, 각각 적립하던 마일리지는 통합에코 마일리지로 들어간다. 마일리지 사용처도 일원화된다. 홈페이지 주소는 기존 에코마일리지 주소(ecomileage.seoul.go.kr)를 그대로 사용한다.

신규 회원은 통합에코 홈페이지 가입 후 개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기 위

한 추가 정보를 등록하면 회원별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가 쌓인다. 기존 회원은 통합에코 홈페이지에 처음 로그인할 때 회원약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환경 마일리지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운영되던 에코·승용차마일리지를 하나로 통합했다”며 “탄소 배출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통합에코 마일리지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이은옥 기자

‘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수원가정법원서 21일 첫 재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 씨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인천지방 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남편 윤모(사망 당

시 39세)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18년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

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 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 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 김경철 기자

밀가루도 역시 큐원입니다!

큐원 밀가루는 품질이 균일하고 가공안정성이 우수합니다.

The Best Solution
ServeQ
삼양사의 식자재 유통 전문 브랜드, 서브큐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삼양사
고객상담실 080-023-3399
www.serveq.co.kr

현대차 울산공장에 전기·수소차 생산 훈련센터 개소

올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5곳 개소…2026년 35곳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해 머리 다쳐…엄중 처벌해야"

경남 창원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 의해 폭행당해 머리를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창원시청 4층 복도에서 발생했다.

중년 여성인 민원인은 당일 본인 민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찾아갔다가 복도에서 해당 공무원을 한 차례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공무원은 그 충격으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혔다. 이 공무원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은 1998년 국도 25호선 개설공사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을 창원시에 지속해서 제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만 해도 1년 넘게 창원시청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참다못한 노조 조합원 113명이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거처분을 신청해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이 민원인은 법원 결정에도 아랑곳없이 지속해서 욕설을 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 국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자동차 산업에서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가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권유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열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직무 전환 훈련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내 기술교육원 1층을 리모델링해 미래형 자동차 분해·조립을 위한 실습 시설, 메타버스 실습 체험 장비 등을 마련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같은 업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전환 훈련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삼성 중공업, SK에너지,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개소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를 끝으로

총 15곳에 생겨 연말까지 총 5천882명의 훈련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매년 5곳 센터를 신설해

2026년 총 35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를 이끄는 업종별 선도 대

기업을 중심으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진택 현대차 국내생산지원사업부장(전무),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권 국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자동차 산업에서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가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근우 기자

대구시, 내일부터 '대구로택시' 서비스



대구형 택시 앱 '대구로 택시' 서비스 개시

월 4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은 3만원에 그치도록 했다.

특히 승객 입장에서도 호출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해 부담을 크게 줄이고 첫 탑승자 3천원 쿠폰 제공, 서비스 재이용자 할인 쿠폰 제공 등의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녀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택시 이용 정보를 부모,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주는 '안심귀가서비스', 어린이와 노인 등을 위해 호출과 결제를 대신해주는 '제3자 택시 지원 서비스' 기능도 선보인다.

시는 가입 차량 확보가 대구로 택시 앱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 현재 3천 300여대를 확보한 데 이어 점차 가입 대상을 넓혀 점유율을 30%대로 달성하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화폐인 행복페이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로 택시의 출범으로 택시업계·운수종사자의 수수료 부담은 완화되고 시민들에게는 택시 이용 편의성과 함께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홍승연 기자

해운대해수욕장서 밀집사고 합동훈련

"해맞이 안전하게"

시는

현재

지역

택시

1만4천여대 가운데

84%

에 해당하는 1만1천700여 대가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카카오택

시

앱에

가입되어

있어

독점에

따른

피해

가크고

시민

불편도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카카오

앱을

이용하는

법인

택시

의 경우

월 400만원을

벌 경우

매월

18만~20만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대구로 택시 앱을

이용하는

택시

의 경우

초기

6개월간은

수수료를

전

혀

납부하지

않고

이후에는

콜당 200원

을

부담하되

월 3만원만을

한도로

설정,

한다.

지난 13일에는 해운대구청 1층 통합 관제센터에서 사전연습도 진행됐다.

해맞이 명소인 해운대해수욕장은 올해 3년 만에 해맞이 축제가 열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구는 경찰, 소방, 해경과 함께 지난 20일 해맞이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전문 의료진 상주, 안전관리 요원 추가 배치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훈련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해맞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차영훈 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7년만에 공식 이름 짓나…'경북 신도시' 검토



경북도청 신도시

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전에 신도시 이름 공모에서 갈등이 생겨 이번에는 별도로 공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북 신도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도청이 이전하기 1년 전인 2015년 행정, 전통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고유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신도시 이름을 공모했다.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퇴계와 동천, 예안 3개를 선정했으나 안동과 예천 일부 주민 등이 행정통합 장애, 흡수통합 우려 등을 내세워 명칭 제정을 반대했고, 지역 간 선호도도 엇갈려 명칭 제정을 보류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도 신도시 이름 문제가 다시 불거졌으나 흐지부지 넘어갔다.

도는 공모까지 실패한 데다 각종 자료나 사업에 경북도청 신도시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돼 새로 이름을 지으면 되레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그동안 별도 명칭을 짓지 않았다.

/ 이유진 기자

협력사 근로자 사망 SK멀티유ти리티 작업중지…중대재해법 검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K멀티유ти리티(MU)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석탄 하역 관리 공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해당 공정이 중단된다. 울산지청은 추가 작업중지 여부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원·하청 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와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울산 남구 SK멀티유ти리티 석탄 하역장 예산 지난 20일 협력업체 근로자 A(59)씨가 석탄에 갇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는 석탄이 실린 28t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하역 중이던 A씨를 덮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멀티유ти리티는 지난해 SK케미칼에서 분할된 회사로 석탄을 통해 전력과 스텁 등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기존 SK케미칼 부지 내 있다.

회사는 최근 석탄발전 보일러 방식을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 백민호 기자



KIA
Movement that inspires

제작국: 대한민국 | 제작년도: 2022년 | 제작번호: 000-000-0000 | www.kia.com

‘관광테마시설 특혜 의혹’ 전 속초시장 직권남용 혐의 조사

공무원 등 3명 입건…압수물 분석 마치고 수사 막바지



속초해수욕장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직권남용 혐의로 김철수 전 시장 을 조사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간부급 공무원 2명 중 1명을 이틀 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테마시설 업체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속초시청 관광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8월 말 김 전 시장 자택과 관광테마시설 업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

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대조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속초시에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에는 5개 업체가 응모했다.

하지만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담당 직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시에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송철웅 기자



응급환자 이송하는 해경

서해해경 함정·헬기 ‘바다 위 앰뷸런스’ 역할 톡톡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과 헬기가 ‘바다 위 앰뷸런스’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 지역 주민들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해해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올해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856명(12월 15일 기준)이다.

소속서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 371명(43.3%), 여수해양경찰서 224명(26.2%), 완도해양경찰서 187명(21.8%), 부안해양경찰서 47명(5.5%), 군산해양경찰서 27명(3.2%)이다. 목포서 여수서 완도서가 이송한 응급 환자 인원이 서해해경청 전체의 90%를 넘는 이유는 관할 해역에 섬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응급환자 이송은 주로 섬이 많은 지역에서 이뤄졌다.

2021년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899명 고 말했다. / 김성훈 기자



대덕구 주민들 “경부고속도로 하부 통행로 확장해 달라”

대전 대덕구 주민들이 법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부에 건설된 통행로를 확장해달라고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에 21일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20여명은 이날 도로공사 대전지사를 찾아가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낭독하고 주민 1만8천여명이 동참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법동, 송촌동, 회덕동 주민들은 서로 단절된 맞은편 지역으로 건너가려면 도로 하부에 건설된 통행 박스(통행로)를 지나야 한

다”며 “하지만 통행로가 좁다 보니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말이면 계곡산, 매봉산, 성재산 등 주변 산을 오르려는 등산객들이 타고 온 차량이 물리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도로공사 대전지사 측은 “간단한 공사가 아닌 만큼 민원 사항을 본사로 보고하면,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 2주 안에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순영 기자

군산형 ‘우리 동네 홍반장’…동네 허드렛일 돋는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홍반장’.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 군산에 ‘우리 동네 홍반장’이 나선다.

2004년 개봉한 영화 ‘홍반장’에서 고 김주혁이 열연한 홍두식은 일없는 동네 아줌마나 탐낼 만한 직업, 동네 반장을 자처하며 이웃들의 온갖 허드렛일을 처리해주 는 ‘오지자파’이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 동네 홍반장’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생활 돌봄 복지서비스의 하나인 ‘우리 동네 홍반장’은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마을의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서비스다.

주민참여형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

련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된다.

‘우리 동네 홍반장’은 홀몸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중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발굴한다.

이들은 생활 속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며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우리 동네 홍반장’은 형광등이나 수도꼭지 교체, 뜯 박기 등 간단한 수리나 짐 옮기기, 커튼 달기, 빨래 건조대 줄 교체 등 사소한 일을 돋는다.

재료 구매비 등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보일러나 가전제품 수리, 지붕 누수 및 방수작업 등 전문 작업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작업, 인테리어 목적상 노후화된 전등 및 인터폰 교체 등은 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우선 읍면동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한 후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신숙경 기자

충북 ‘의료비후불제’ 시동…12개 종합병원 업무협약

충북도는 21일 대출을 전담할 농협, 의료비후불제 동참을 약속한 도내 12개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청주성모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하나병원, 충주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옥천성모병원, 중앙제일병원이 참여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 이승재 기자

**2021 브랜드 고객충성도
변비약 부문 1위**
주최·주관 : 한국소비자포럼

BCLI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변비없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사는
비결! 바로 메이킨이죠.
변비에 좋은 생약과 양약성분이 밤사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광고심의등록번호: 2021-1583-002201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해십시오.

변비는 부드럽게!

몸은 가볍게!

장은 활발하게!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썩~ 메이킨!

**2021 브랜드 고객충성도
변비약 부문 1위**
주최·주관 : 한국소비자포럼

BCLI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변비없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사는
비결! 바로 메이킨이죠.
변비에 좋은 생약과 양약성분이 밤사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광고심의등록번호: 2021-1583-002201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해십시오.

검찰, '우리은행 707억원 횡령' 조력자 7명 기소

증권맨·전씨 형제 부모 등 90억원 받아 사적 사용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구속기소)가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하는데 도움을 준 증권맨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8명을 입건해 증권회사 직원 노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씨 형제의 가족과 지인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형제는 본인과 가족 채무를 갚기 위해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9년간 우리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 워크아웃 관련 자금 등 총 707억원을 횡령했다.

이들이 장기간 범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덕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сан의 공범인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씨 형제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증권회사 직원 노씨다.

노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줬다. 전씨 형제는 이를 이용해 4천여차례에 걸쳐 주식매매와 옵션거래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전씨 형제 돈이 불법 자금이란 점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위해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노씨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에서 4억4천만원을 받았다.

노씨를 포함해 전씨 형제의 부모, 지

인 등 7명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수익이라 사실을 알면서 전씨 형제로부터 총 89억9천800만원을 받아 체무변제, 사업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전씨가 횡령한 돈 중 674억여원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2016년 12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부지 매각 업무와 관련해 대부금 환급금 약 7천500만원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우리은행 명의 문건을 위조·발송하는 등 총 9종의 공문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 김문성 기자

사촌 형수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сан은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59)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형수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이철성 기자

제주경찰청 신청사 준공 기념식…“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

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시 노형동에 지은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 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라산 자락을 두른 신청사의 웅장한 모습이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제주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든든하다”며 “새로운 터전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을 제주경찰청장은 “제주경찰청이 연동 청사를 뒤로하고 열린 노형에서 도민 여러분을 맞이하게 됐다”며 “쾌적한 균무환경에서 최상의 치안 서



비스로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제주 경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신청사는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옛 제주해안경비단이 있던 제주시 노형동 550 부지 3만5천155m²에 지상 7층, 지하 1층, 전체 면적 1만5천843m² 규모로 지어졌다.

제주경찰청 청사 이전은 1980년 제주시 삼도2동에 있던 제주도경찰국 청사에서 연동 청사로 이전한 지 42년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연동 청사 건물 노후화와 사무·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 흥민우 기자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권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권씨는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씨와 성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심은 권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 / 성동영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쉽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수년간 거주지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 성동영 기자

이정근 측 “명품백 포함 수천만원 받아”



명품 가방을 비롯해 3천만원~4천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원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다면 박씨가 금품을 주면서 별도의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박씨를 수천억 원대 부자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사람이 건네는 몇백만 원은 일반인으로 치면 몇 만 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봤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사업가 박모 씨가 생일 선물로 준

/ 박성진 기자

aT 가 함께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농식품 수급안정

식품산업육성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농식품 유통개선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KB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BRAVE

[용감하게]

금융플랫폼 KB Pay

INSIGHT

[통찰력있게]

미래를 위한 글로벌 진출

GREAT

[위대하게]

ESG경영 실천

KB
Pay카드를 넘어 **금융플랫폼으로****BIG MOVEMENT**

준법감시관 심의필 세220805-02589-ADP(2022.8.5 기준)



호날두, 사우디아라비아 팀과 계약 임박…스페인 매체 보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가 올해 안에 사우디아라비아 클럽팀인 알나스르와 계약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21일 “호날두가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에 있으며 곧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올해 안에 계약서에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라고 전망했다.

조건은 2년 반 계약에 연봉 2억 유로(약 2천73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광란 도가니’ 아르헨, 400만 구름 인파에 헬기 퍼레이트 피날레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컵을 들고 금의 환향한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몰려든 구름 인파에 예정된 카페레이드를 중단, 헬기를 갈아타고 행사를 마쳤다.

페레이드의 최종 목적지였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오벨리스크 주변에서 대표팀 선수들을 기다리던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AFP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에서 우승 기념 축하 카페레이드를 시작하고서 5시간 가까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가야 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선수들을 보려는 팬들이 한꺼번에 밀리면서 대표팀 차량의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는 도심까지 30km 정도 이어

진 대표팀의 카페레이드 경로에 4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행사 과정에서 18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 고가다리 위에서 지붕을 제거한 선수단의 퍼레이드용 차량으로 2명이 잇따라 뛰어내리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1명은 버스 위에 악착했지만, 나머지 1명은 버스를 놓치고 버스 뒤 도로 위로 떨어졌다.

BBC는 오벨리스크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자사 기자가 환영 인파 속에 강도 피해를 봤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당국은 급히 모든 일정을 변경했고, 선수들은 버스에서 내려 헬기로 갈아타고 오벨리스크 상공을 지나는 ‘공중 퍼레이드’를 한 뒤 행사를 마쳐야 했다.

/ 양호성 기자

11월까지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호날두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해지해 현재 소속 팀이 없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와 경기에서 골을 넣어 월드컵 사상 최초로 5개 대회에서 득점한 선수가 된 호날두는 8강에서 모로코에 0-1로 져 탈락했다.

이후 예전 소속팀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시설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신문 데일리메일은 지난주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 시설에서 이를 간 훈련했고, 이후 두바이로 떠났다”고 보도했다.

마르카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두바이에서 보낼 것”이라며 호날두가 알 나스르와 계약하더라도 시기는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호날두의 알 나스르행 관련 보도는 월드컵 기간에도 나왔고, 호날두 측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 최준용 기자

KBO, 자체 로진 사용금지

주루장갑 벗겨지면 제재금 부과 가능

앞으로 KBO리그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는 자체 제작한 로진을 사용할 수 없다. KBO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2차 규칙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투수는 KBO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일본프로야구(NPB)에서 승인된 로진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회에 로진을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KBO는 “일부 접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주루 도중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 장갑에 대해서도 ‘길이 30cm, 너비 13cm 이내’ 규격이 도입됐다.

또 주자는 플레이 도중 장갑이 손에

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장갑이 벗겨져 경기에 지장을 줬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물질 검사 절차도 구체화했다. 기존 규정은 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검사 절차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었다.

KBO는 경기 전 또는 도중 심판진이 의심하거나 상대 팀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심판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는 주심과 루심이 모두 참여하며 손가락, 손등, 손바닥 등 손 전체가 검사 대상이 된다. 투수 이외에도 야수, 포수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적발된 선수는 기준 규정에 따라 즉시 퇴장되며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는다.

/ 이성호 기자

프로축구 성남, 수원서 뛴 공격수 유주안 영입



유주안

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시즌까지 출곧 수원에서 뛰었으며, K리그 통산 61경기에서 4골 7도움을 올렸다.

성남은 “유주안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동료들과 연계플레이를 통해 팀의 공격을 강화하는 것이 장점”이라며 “스피드와 돌파 능력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성남 사령탑에 오른 이기형 감독도 “유주안은 잠재력이 있는 선수다. 빠르고 체력이 좋아 팀의 공격 포지션에 잘 녹아들 것이다. 2023시즌 팀에 많은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주안은 “팀이 힘든 시기지만 잘 적응하고, 동계 기간 준비를 잘해서 돌아오는 시즌 승격이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성남 팬들께 꼭 인정을 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시즌 7월 수원FC에서 임대로 활동

de
sang
DAESANG

정원이라면, 만족할 만두 하지

HOME:ings
호밍스



청정원

일제강점기 첨보 액션물 '유령'...“기존 항일영화와 다른 색감”

설경구·박해수 주연...이해영 감독 “제대로 된 캐릭터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

‘믿고 보는 배우’ 설경구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등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인 박해수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첨보 액션물로 한데 뭉쳤다.

내달 개봉하는 영화 ‘유령’은 일제 강점기인 1933년 항일조직이 심어놓은 스파이 ‘유령’으로 의심받으며 외딴 호텔에 갇힌 용의자들이 살아남고자 벌이는 시투와 진짜 ‘유령’의 치밀한 작전을 그린 작품이다.

설경구는 극 중 조선총독부 통신과 감독관 ‘준지’를, 박해수는 유령을 잡기 위해 몇을 놓는 신임 총독 경호대장 ‘카이토’로 나선다.

설경구는 19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1933년 경성 총



스파이 액션물 '유령' 주연들

독부에서 일하는, 유령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벼랑 끝 호텔에 감금한 뒤 색출하는 작업을 그렸다”며 “의심받는 자들은 탈출

하고 싶어하고, 진짜 유령은 임무를 완수 해야 하는 첨보극”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장르물이라는 점에서 많이

풀렸다”며 “기존 항일 영화와 다른 색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지’와 경쟁 관계로 대립각을 세우는 카이토 역의 박해수도 “모든 캐릭터의 다 층적 심리가 멋있었다”면서 “현실성을 법한 캐릭터로, 너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수는 영화 속 대사가 모두 일본 어라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전 2주간 하루 5~6시간씩 일본어 공부에 매달렸다고 한다.

이번 작품을 연출한 이해영 감독은 “일본어 분량, 언어 종합감 때문에 선뜻 역할을 주기가 어려웠으나 (박해수는) 나중에 본인 대사만이 아니라 전체 시나리오 중 일본어를 모두 암기했다”며 “작품의 수호 천사였다”고 추켜세웠다. / 민지영 기자



걸그룹 뉴진스

뉴진스 올겨울도 달구나...신곡 '디토' 음원 차트 정상

걸그룹 뉴진스가 19일 발표한 신곡 ‘디토’(Ditto)가 주요 음원 사이트 1위에 오르며 데뷔 음반에 이어 또 한 번의 흥행을 예고했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디토’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의 ‘톱 100’ 차트 1위를 기록 중이다.

광고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참여했다. 뉴진스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색감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진스의 새 싱글 ‘OMG’는 다음 달 2일 발표된다. / 이승희 기자

아이브, 내년 2월 첫 번째 팬 콘서트 개최



아이브, 내년 2월 첫 번째 팬 콘서트 개최



송가인 디너쇼

해 팬 콘서트 개최 사실을 알렸다. 아이브는 올해 데뷔곡 ‘일레븐’(ELEVEN)을 시작으로 ‘러브 라이브’(LOVE DIVE)와 ‘애프터 라이크’(After LIKE)까지 3연타 히트를 기록했다.

▲동방신기, 데뷔 19주년 기념 유튜브 리브이브=그룹 동방신기가 오는 26일 오후 8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데뷔 19주년을 기념하는 생방송 ‘원터 로즈 포카시오페아 : TVXQ! 19th 데뷔 애니버서리’(Winter Rose for Cassiopeia : TVXQ! 19th Debut Anniversary)를 연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동방신기는 방송을 통해 지난 19년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주제의 대화로 팬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특별한 라이브 무대도 마련된다.

동방신기는 오는 26일 발매되는 SM 타운 겨울 음반 ‘SM타운 : SMCU 팬리스’(SMTOWN : SMCU PALACE)에도 참여했다.

아이브는 공식 SNS를 통해 초대장을 떠올리게 하는 세 장의 이미지를 공개

방심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보도들에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영상을 허립 처리 없이 내보낸 MBC TV ‘MBC 뉴스특보’의 10월 30일 보도에 대해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 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장금’으로 구분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참사 전후 상황에 대해 제보 영상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부 장면을 별도 허립 처리하지 않았다. 윤성옥 위원은 “화면상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또 10월 30일 방송된 SBS TV의 ‘SBS 뉴스특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한 긴급상황점검회의 내용을 전하며 회의와 직접적 관계없는 자료 화면을 출처 없이 사용한 데 대해서도 ‘권고’ 의결했다. / 양민호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 원 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 두 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 난 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함께 웃어요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도

땅끝 섬마을에서도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당신의 상상. 모빌리티로 만나다

이동의 공간이 영감의 공간이 되고
이동의 시간은 창조의 시간이 되기를

당신은 꿈꾸고
우리는 실현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상상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를 만나보세요